

# 시와 노래로 실크로드 따라 '평화'로 향한다

코리아시아 로드 런, 아카데미 개최  
내달 10일부터 동명병원서 강연  
박구용 교수·안도현 시인 등 출연  
"휴전선 철조망 넘어서는 날까지  
광주 넘어 전국서 문화운동 전개"

'코리아-유라시아(코리아시아) 로드 런'은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광주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오랜 기간 남북 평화를 꿈꾸며 달거리 공연을 이어왔던 광주 대표 민중가수 김원중을 필두로 뜻을 함께하는 예술가와 시민들이 모였다.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평화로드를 꿈꾼 이 모임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확대됐고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 전시, 출판 등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리아시아 로드 런의 지향점은 섬처럼 갇혀 사는 대한민국이 섬이 아님을 자각하는 것에 있다. 155마일 휴전선 철조망 일부를 잘라 길을 내고, 북녘땅을 지나 육로로 국경을 넘어보자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2018년 6월 창립 당시 이 프로

젝트 진행의 최종 목표는 '현대판 실크로드'라 불리는 '아시아하이웨이'를 따라 무대 차량으로 대륙을 거쳐 평양·시베리아·모스크바·베를린 암스테르담을 지나며 그 지역과 우리의 문화를 결합시킨 유라시아 평화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자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의 프로젝트 역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며 남북관계가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다.

코리아시아 로드 런이 이번에는 평화를 위한 시민강좌를 연다. 오월 음악과 공동 주관으로 '시와 노래 만들기' 아카데미를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동명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첫 강좌는 오는 6월 10일 류형선(현 광양시립GREEN국악단 예술감독) 작곡가가 '당장 활용 가능한 국악 작곡기법(대중적인 국악 노래 분석)'에 대해 말한다. 류 작곡가는 국악동요 '모두 다 꽃이야', '내 똥꼬는 힘이 좋아', 영화 귀향 OST '가시리' 등 400여개의 국악 관련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강좌는 6월 17일 박구용 철학자가 '노래로 철학하기, 철학으로 노래하

기(철학적 통찰력을 갖춘 노래 읽기)'에 대해 말한다. 박 철학자는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광주시민자유대학 이사장으로 있다. 저서 '자유와 폭력', '도구적 이성 비판' 등을 펴낸 적 있다.

세 번째 강좌는 6월 24일 연탄재 시인 안도현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노랫말'에 대해 말한다. 네 번째 강좌는 7월 1일 황윤기 평론가가 '처음 들어도 오래 들어온 듯, 오래 들어도 처음 들은 듯(월드뮤직의 간결한 노래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다. 다섯 번째 강좌는 7월 8일 백창우 작곡가가 '시는 어떻게 노래가 되는가(시, 노래, 노랫말)'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 강좌는 7월 15일 최고은 싱어송라이터가 '내 삶의 아리랑(스토리텔링을 품은 음악 짓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다.

이제야 코리아시아 로드 런 대표는 "기존 코리아시아 로드 런 회원 외에 시와 노래, 춤, 예술과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예술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자리다"며 "여러 전시, 공연, 시민강좌 등 문화운동을 통해 무대가 있는 자동차를 타고 광주, 부산에서 출발해 북녘땅을 지나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아시아와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까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류형선(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구용, 안도현, 최고은, 백창우, 황윤기가 오는 6월 10일부터 광주 동명병원에서 코리아시아 로드 런 주최로 열리는 '시와 노래 만들기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선다. **코리아-유라시아로드 런 제공**

## 일상의 소비 욕망 포착... 장유호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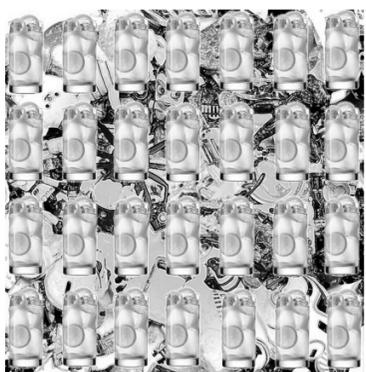
내달 2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늘날 사회현상의 면면을 수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하는 장유호 작가의 개인전 '소비-욕망'을 오는 6월 2일까지 연다.

장유호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주목하고 자신만의 예술적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2021년에 발표된 'Tomorrow' 전에서는 심각한 질병이나 환경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기록과 재현을 통해 작품을 제작했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의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해 열렸던 개인전 '사냥꾼 이야기'에서는 군인 피규어, 미니 자동차와 비행기, 장난감 인형을 활용해 사냥과 포획의 추격전을 펼치며, 작가만의 사냥터를 구성하여 도처에 만연해 있는 약육강식의



장유호 작 '레모네이드'.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모습을 은유로 풀어냈다.

그동안 21세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꾸준히 다뤄왔던 작가는 올해 전시에서는 현대 소비 사회와 자본주의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이번 30회 개인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즐기는 커피, 레모네이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맛과 형태의 음료를 통

해 인간의 소비 행위와 욕망에 관해 탐구한다.

장유호 작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더 나은 상품만을 찾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소비사회의 상징적 기호로 음료를 선택했으며, 작품에서 음료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의 갈증과 욕망을 의미한다. 작업 방식은 미니어처, 피규어, 인형, 장난감 등 오브제를 수집하고 분류한 뒤 다양한 구도로 배치한다. 그리고 연출된 장난감들을 사진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각적인 변화와 재미를 더한다.

장유호 작가는 "인간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로이 바라보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이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를 통해 앨범 '예언'을 발매했다. **ACC재단 제공**

## "한국적 사운드에 헌사하는 앨범 '예언' 발매"

ACC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1970년대 한국 재즈계가 '예언' 했었던 한국적 사운드에 헌사하는 프로젝트 앨범을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앨범 '예언'과 연계 문화상품 5종을 동시에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과거 음악을 동시대 음악가들이 현재의 소리로 재해석·재창조하는 프로젝트다.

앨범 제목인 '예언'은 구전 민요·속악을 비롯해 1970~60년대 대중음악과 재즈가 지역화되고 동시대적 사운드로 발현되는 '예언'과도 같은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이번 앨범 작업은 DJ 소울스케이프(박민준, DJ Soulscape)가 이끄는 경음악단 'STUDIO 360'이 작업했다. DJ 소울스케이프가 프로듀서 겸 작·편곡을 맡은 것을 비롯해 △김오키(색소폰) △윤석철(피아노·키보드) △가데호(기타·베이스·드럼) △마더바이브(비브라폰) △관돌(퍼커션) 등 정쟁한 실력과 연주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밀양아리랑, 새타령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 멜로디를 각기 다른 리듬의 질감으로 해석하고, '바람' 등의 오

리지널 트랙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구슬픈 감성을 그려냈다.

ACC재단은 이번 프로젝트 앨범 발매를 기념해 서브컬처 브랜드 '발란사'와 함께 티셔츠, 모자, 키링, 손수건, 세라믹 접시 등 다양한 협업 상품도 출시했다. 발란사는 국내는 물론 일본, 태국, 중국 등 아시아 현지 브랜드와의 다채로운 협업을 진행하며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한 업체로, 이번 작업을 통해 ACC재단 브랜드 'DLAC 들락' 로고와 결합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도출해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앨범 반짝 매장도 운영한다. ACC 문화상품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5월 24~25일 서울 해방촌 웰컴레코즈에서 반짝 매장 운영과 함께 DJ 소울스케이프의 디제잉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앨범 '예언'의 음원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실물 앨범과 연계 상품 등은 ACC 문화상품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선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프로젝트 앨범 '예언'이 한국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념비적인 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 있고 대중적인 상품을 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 클래식의 향연... 5월 목요일콘서트

23:3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아멜리 앙상블' '아랑' 출연

광주문화재단은 계절의 여왕 5월의 목요일콘서트 무대를 오는 23일과 30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먼저 아멜리(Amelie) 앙상블 공연팀이 23일 목요일콘서트 공연(3회차)에서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해 오페라 이야기 '제왕'이라는 주제로 관현악 5중주 무대를 펼친다.

아멜리(Amelie)는 프랑스어로 '꿈임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멜

리 앙상블은 '최상의 연주'라는 목표 아래 젊은 음악가들이 모인 관현악 5중주 팀이다. 이번 무대에서 플루트 표지훈, 오보에 류혜인, 호른 이용학, 비올라 민선지, 첼로 이하민이 출연한다.

문화예술단체 아랑은 30일 목요일콘서트 공연(4회차)에서 '첼보오케스트라 20세기 작곡가 명곡, 20세기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현악 5중주 무대를 펼친다.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즐길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 '아랑'은 광주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2022년 창단된 그룹이다. 이번 무대에 기획 기군홍, 바이올린 문희연·박주양, 비올라 안지선, 첼로 김도

영, 피아노 전민재, 클라리넷 백운선이 출연한다.

목요일콘서트 3, 4회 관람 예매(객석 1인당 5000원)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사전 예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https://www.gjcf.or.kr>), 빛고을시민문화관(<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https://dmgi.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광주문화재단은 매주 목요일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는 '목요일콘서트'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총 18회 진행한다. 다음 다섯 번째 목요일콘서트는 6월 13일 예정돼 있으며 공연단체 '풍당클래식'이 '사랑의 미로'라는 주제로 감동적인 성악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